

중전 로마자 표기법의 이론과 실용상 문제점

俞萬根

성균관대학교 음성학 교수

이 글은 우리말 로마자 표기법 수십 가지 중에서 우리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두 가지 즉 ①M-R체계(1939)와 ②문교부 안(1959 案)을 주로 검토하는 것으로 테두리를 정하기로 한다. 우리말 로마자 표기 역사는 중국어나 일본어 경우보다 늦게 시작되었지만 이미 1832년에 일본정부 고문으로 일하던 독일인 의사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가 고안한 것이 전해지니 2000년 시점에서 보면 그때부터 1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고안된 로마자 표기법이 줄잡아도 70종은 넘을 것이다. (M-R 1939, 최현배 1961, 유만근 1985 참조) 그러나 크게 주목을 받거나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많은 것은 아니다.

로마자 표기법을 고안하는 사람은 우선 표음법(transcription), 자역법(transliteration), 모의발음법(imitated pronunciation), 우선 이 세 가지쯤은 분명히 구별할 줄 알고, 그 중 어느 하나를 확고한 목표로 삼아야 언어학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작품이 나온다. 표음법이란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한글이 있지만 마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현대국어 발음을 음성학/음운학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글자 배당을 하여 정식 로마자 정서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반면에 자역법은 한글 맞춤법을 일단 로마자로 옮겼다가 거기서 다시 한글로 100% 환원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한국어 모르는 사람에게 발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1차 목표가 아니다. 자역법은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타자수라도 한글 글자 모양만 식별할 수 있다면 로마자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체계다. 그것은 기계적 능력을 중시하여 타자 횟수가 적을수록 좋다.

모의 발음법은 어떤 나라 말 발음을 탄 언어 사용자가 알기 좋게, 발음기호 대신 그 외국인의 말 로마자 철자식으로 바꿔 표기하는 것이다. 가령 영국에서 그 이웃나라 말 모음을 영어식으로 대강 나타내려 할 때, 대개 다음과 같은 범례에 따라 표기한다. (Berlitz Co. 1995 참조)

[i:/i] ee [e] ay [ɛ] eh [a] ah [a:] aa
 [ɔ] o [o] oa [u] oo [ə] er
 [y] ew [ø/œ] ur [w/ɥ] w [ɛ/œ] ang [ã] ahng [ɔ̃] awng ...

이것으로 불어를 표기하면,

Oui: wee, Non: nawng, Bonjour: bawngzhoor 처럼 되고,
 이태리어를 표기하면,

Si: see, No: noa, Buon giorno: bwon joarnea 처럼 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말 발음을 표기한다면.

에: ay, 애: eh, 오: oa, 어: o,
 밤(夜): bahm, 밤(栗): baam 썸 될 것이다.

이런 모의 발음법은 발음기호(IPA)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 대신 임의로 쓰는 것이므로 다소 부정확하고, 글자 수가 공연히 많아지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냥 견딜 수밖에 없다. 이것은 벌리츠(Berlitz) 외국어 엽구집 (phrase book) 총서처럼 여행자들이 머지않아 찾아갈 바깥 나라 말을 속성으로 배울 때 사용하다가 다녀온 후에는 곧 내던져 버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제로 별 문제가 없다.

그밖에도 로마자 표기에는 이를테면 ‘박영옥’=Young-Oak Park’ 또는 ‘배문기’=Moon-Key Bay’같이, 원음을 다소 변경하는 것도 꺼리지 않고 영어화하는 귀화 표기(歸化表記) 등, 목적과 용도에 따라 딴 것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어느 표기법이거나 고안자가 그 성격과 용도를 분명히 밝히고 그 목적에 충실한 것이면 일단 어느 것이나 그 나름으로 평가 받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 M-R 체계 검토

【표기 일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ㅣ	
a	ae	ö	e	o	u	ü	i	
ㄱ	ㄲ	ㅂ	ㅋ	ㅌ	ㅍ	ㅈ	ㅊ	ㅊ
k/g	t/d*	p/b	k'	t'	p'	kk	tt	pp
ㅅ	ㅆ	ㅈ	ㅊ	ㅌ	ㅎ	ㄹ	ㄴ	ㅇ
ch/j*	ch*	tch	s*	ss*	h	r/l	n	m ng

*받침소리는 t로 적음.

1984년에 당시 문교부가 채택한 로마자 체계는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1939년에 왕립(영국) 아시아학회 한국지회 논문집(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9)에 나온 M-R체계 그대로다. 이제부터 이 M-R체계의 문제점을 대강 살펴보기로 하자.

MR체계에서 주요 표기 원칙 세 가지는 ①한글 자역법이 아니라 우리말 표음법이다. ②일본어 표기법 ‘헵번’(Hepburn [hebɜ:n])체계나 중국어 표기법 ‘웨이자일’(←Wade-Giles)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자 음가가 모음은 이태리어식, 자음은 영어식이다. ③이태리어 모음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ㅓ’는 ɔ로, ‘ㅡ’는 ʊ로 적는다는 것이다.

이상 세 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 원칙인 ‘표음법’ 천명은 표음법, 자역법, 모의발음법 중에서 어느 것인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우선 잘한 것이다. 표음법과 자역법을 뒤섞으면 국제성도 떨어지고 언어학적으로 높이 평가받기 어렵다.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는 긴 이야기를 해야겠다. 혹시 영어 역사와 영어 발음 사정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인 M-R 두 사람이 모음, 자음 글자를 모두 영어식으로 배당하지 않고 왜 모음은 이태리어 식으로 처리했는지 궁금해할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1. 모음 처리

현대 영어 철자에서 모음 글자는 600년 전 영어 발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요새 발음과 너무나 어긋나고, 그나마 철자와 발음 간에 1:1로만 대응되는 일이 전혀 없다. 가령 철자상 a 또는 o는 음가가 각각 열 가지가 넘으며, 두 글자를 합친 ou도 그 이상으로 다른 소리가 난다. 다음 예를 보자.

[a 字 소리]	[o 字 소리]	[ou字 소리]
1. a: (father)	1. əu (home)	1. əʊ (soul)
2. eɪ (name)	2. ɒ (box)	2. ɔ: (four)
3. æ (cat)	3. ɔ: (cord)	3. ʊə (tour)
4. e (many)	4. ʌ (sponge)	4. aʊə (our)
5. ɛə(spare)	5. ɜ: (attorney)	5. ɜ: (journey)

- | | | |
|----------------|-----------------------|-----------------------|
| 6. v (want) | 6. v (bosom) | 6. v (Gloucester) |
| 7. ɔ: (all) | 7. u: (do) | 7. aʊ (south) |
| 8. ɪ (village) | 8. ə (method) | 8. ʌ (young) |
| 9. ə (opera) | 9. ɪ (women) | 9. ʊ (couldn't) |
| 10. 默音(total) | 10. 默音(button) | 10. u: (group) |
| 11. ʌ(Qatar) | 11. ju:(Douglas-Home) | 11. ə (famous) |
| | | 12. ju:(Houston City) |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같은 모음을 적는 철자가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것이다. 가령 쪽정모음(schwa) ə를 적는 영어 철자는 무려 40가지가 넘는다. 다음 예를 보자.

- | | | | |
|-------------------|------------------|------------------|------------------|
| 1. opera | 2. Isaac | 3. ma'am * | 4. mountain |
| 5. Caernavonshire | 6. Branagh | 7. Hannah | 8. Alastair |
| 9. leopard | 10. Islay | 11. moment | 12. bureaucratic |
| 13. luncheon | 14. concert | 15. were * | 16. Syzergh |
| 17. amateur | 18. Edinburgh | 19. Durham | 20. horrible |
| 21. parliament | 22. confirmation | 23. Berkshire | 24. method |
| 25. cupboard | 26. does * | 27. tortoise | 28. Belvoir |
| 29. Lincoln | 30. effort | 31. famous | 32. borough |
| 33. Melbourne | 34. labo(u)red | 35. Wigtownshire | 36. massacre |
| 37. focus | 38. guerilla | 39. Mauritius | 40. pleasure |
| 41. gunwale | 42. boatswain | 43. by * | 44. martyr |
| 45. martyred | 46. Pennyworth | | |

* 약형(weak form)

영어 모음 글자 발음 형편이 이러하므로 누구라도 로마자 표음법을 고안

할 때는 (모의 발음법 범례 경우를 제외하면) 영어 모음 표기식은 언제나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모음 글자 배당에서만은 일정한 음가를 가진 불어나(대개 모음이 7개 이상일 때), 스페인/이태리어를(주로 모음이 5개 이내일 때) 참고할 만하다.

중국어는 5개 모음 글자에다 [y]소리를 적는 ü 하나를 추가하면 음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일본어는 단순한 5모음 체계이므로 중·일 두 언어 경우에는 복잡한 모음 체계를 가진 불어 표기식까지 갈 것도 없이 스페인/이태리어 모음 표기 방식으로 족한 것이다. 스페인 어, 라틴 어, 희랍어, 일본어는 모두 5모음 체계이며 이태리어는 세련된 표준말(피렌체 방언: e/ε 또는 o/o) 구별이 있음)은 7모음 체계지만 보통은 5모음으로 통한다.

학술적으로 볼 때, M-R 체계(1939) 고안자가 저지른 큰 실책은 (아마 일정치하에서 상황적 불가피성이 있었겠지만) 당시 조선을 언어학적으로조차 다소 홀대하여 한국어 모음 체계 자체를 중시하지 않고, 중국식/일본식, 즉 모음 수가 적어 이미 이태리어 모음 표기식으로 되어 있는 중국 '웨이자일' 체계와 일본 '헵번' 체계를 염두에 두고, 한국어 모음 표기도 그 틀에다 억지로 연계시키려 한 것이다. 그래서 무리하게나마 '애'를 '아에'(ae)로 '외'를 '오에'(oe)로 대신하는 데까지는 갔으나 그 다음 '어'와 '으'의 경우는 아무리 두 글자를 이어 발음해도 비슷한 소리가 나오지 않으므로 결국 별 수 없이 ö, ü 같은 보조 기호 사용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근본적 잘못이었고 이론상, 실용상 문제는 모두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모음이 일곱 이상인 언어에서는 두 글자를 따로따로 발음하는 이태리어식보다 두 글자를 합쳐 제3 음가를 규정해 놓는 불어 철자방식을 참고하는 것이 백 번 낫다. 우리는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다. 가령 ai는 '아이'가 아니라 '애'로, au는 '아우'가 아니라 '어'로, ou는 '오우'가 아니라 '우'로 음가를 규정하고 선포하는 식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시 일본 통치 아래서 5모음 체계인 일본어가 공용어였을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시작 무렵 반불(反佛) 친이(親伊) 분위기를 편승한 언어학 외적(外的) 작용까지 원인이 되어 결국

M-R체계는 이렇게 엉성하고 불편한 모음 표기 방식을 빚어낸 것으로 생각된다.

2. 모음 길이 처리

1939년 M-R체계에서, 한국어 모음 길이가 뜻 구별에 관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표기 대책을 허술하게 마련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즉 모음 길이 차이가 특히 중요한 경우는 ㅓ(e), ㅣ(i), ㅜ(u) 세 모음이라 했는데(M-R 1939:18-19), 거기서 그 나머지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길이 차이를 왜 무시했는지 모르겠다. 가령

밤(夜)/:밤(栗),	새집(新屋)/:새집(鳥巢),
적다(筆記)/:적다(少),	온(來)/:온(全),
그림(Grimm)/:그림(畵)...	

같이, 모음 길이 차이만으로 뜻이 달라지는 최소 대립쌍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혹시 M-R 체계 고안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적혀 있는 우리나라 어학자 (당시 延禧專門 교수 최현배, 김선기, 정인섭) 세 분이 모두 남도 출신이라 서울말 모음 길이에 자신이 없어 긴 모음/길이 운소(長韻素, chroneme) 표기 필요성을 역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M-R 두 사람은 긴 모음 구별 표기가 중요치 않다고 하면서도, 혹시 사람에 따라 그 표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임의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놓는 사례 깊음을 보였다. 즉 모음 ㅣ(i)와 ㅜ(u)에서는 i, ū처럼 짧은 윗줄(macron 또는 long sign)을 긋고 ㅓ(e)에서는 é처럼 날선 강세(accent acute) 기호를 찍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음 길이 표시를 안 해도 큰 혼란이 없다는 무딘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천 쌍(Youe 1986 참조) 동철이음어(同綴異音語) 구별 표기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1961년 왕립(영국)아시아학회 한국지회 논문집(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38)에 실린 M-R체계 요약 소개문에는 모음 길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만약 M-R 두 사람이 지리학자나 정치학도가 아니라 언어학자/음성학자였거나, 혹은 장운언어(長韻言語/chrone language)인 서울말을 쓰는 어학자의 조언을 받아 모음 길이 중요성을 인식했다라면 좀더 수준 높은 표음 방식을 마련했을 것이다. 한글 자역법이 아닌 표준말 표음법이면서 길이 운소(chroneme) 표기를 사실상 무시한 것은 M-R 체계의 치명적 결점이지만, 실은 이것이 M-R 두 사람의 탓이라기보다, 허술하나마 애당초 제시된 표기 규정을 보충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한 채 오늘날까지 온 후세 사용자들의 어학적 둔감 탓이 더 크다 할 것이다.

3. 자음 처리

M-R체계에서 ㄱ ㄷ ㅂ 음소에 각각 k/g t/d p/b 두 가지 글자를 배당한 것은 그 고안자 두 사람이 모두 전문 언어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 음소를 같은 글자로 적는 음운학상 일반 원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유성/무성 차이보다 연한소리(lenis)/세찬소리(fortis) 차이가 더 상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무성 연한소리인 'ㄱ ㄷ ㅂ' 음소에 세찬소리 글자 'k t p'를 배당한 것은 현대 음성학/음운학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다.(Ladefoged, P. & Maddieson, I. 1996:95 참조)

'ㄱ ㄷ ㅂ' 소리가 무성음 인상을 주는 경우와 그것이 유성음 사이에 끼어 유성음 인상을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해도 같은 단어는 어느 한 가지로만 적고 다른 하나는 규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바뀌 발음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보편적인 표기 방식이다. 미국인 M-R 두 사람은 독일어, 화란어, 노어 철자 관례를 잘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언어에서는 옛날부터 변이음을 따로 표기하기는커녕 심지어 음소가 달라지는(p~b, t~d, k~g) 변이 형태가 지도 모두 형태소 표기를 하여 같은 글자(b, d, g)로 적는 것이 관례다. 다음

예를 보자.

[화란어]	pad (길, path)	paden (복수)
	[t] → [d]	
	heb (가지다, have)	hebben (활용형)
	[p] → [b]	
[독어]	halb (절반의, half)	halbes (중성형)
	[p] → [b]	
	Bund(묶음, bunch)	Bundes (복수)
	[t] → [d]	
	Tag (날, day)	Tages (복수)
	[k] → [g]	
[노어]	хлеб (빵, bread)	хлебу (與格)
	(khleb)	(khlebu)
	[p] → [b]	
	суд (법정, law-court)	суда (生格/屬格)
	(sud)	(suda)
	[t] → [d]	
	враг (적, enemy)	враги (복수)
	(vrag)	(vragi)
	[k] → [g]	

여기서 k/g, t/d, p/b 각 쌍 두 글자 중에서 왜 g d b가 k t p를 누르고 대표 철자가 될까? 이것은 음운학에서 g=k+voice, d=t+voice, b=p+voice(聲/청울림)이라는 생각 때문에 g d b는 기본적인 k t p(無標系列/série non-marquée)를 내포할 수 있어도 그 역(逆)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좀 더 포괄적인 g d b(有標系列/série marquée)가 대표 철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글자들이 k t p로 발음되는 환경은 정해져 있어 예측이 가능하므로 그 발음 변동을 규칙으로 설명하면 된다.

우리말로 예를 들면 '밥!'하고 외마디 소리치는 것을 인상에 따라 pap처럼 적는다 해도 '이 밥은...'처럼 문장 일부로 들어가면 bab이 되므로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골라 형태소 표기를 하는 경우에 bab을 대표 철자로 삼아야 언어학 상식에 맞는 표기 방식인데, 언어학자가 아닌 M-R 두 사람은 이 로마자 운용상 보편적 관례를 모른 것이다. 이렇게 파열음 표기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된소리 'ㄱ ㄷ ㅂ' 표기에 그냥 k t p 한 자씩이면 족한 것을 공연히 자역법 인상을 주는 글자 겹치기 kk tt pp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M-R체계에서 거센소리 표기 k' t' p'는 kh, th, ph 대신 쓴 것이데 그것이 표음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으나, 글자 아닌 보조기호를 쓰는 것이 불편한 것이다.

M-R체계에 대한 논평은 이쯤에서 그쳐야 할 것 같다. 요컨대 비전문가 작품으로서 언어학적/음운학적 미숙한 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지만 그런 대로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어 음성정보를 전달하는데 어지간히 기여해 왔다. 특히 서양 외국인들은 앞으로도 표음법과 자역법을 절충한 어느 체계보다도 순수 표음법에 애착을 가질 것이다. 언어학적 뒷받침이 허약하지만 M-R체계는 그래도 표음법이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이므로 언어학/음운학 이론적 뒷받침 외에, 어디까지나 표음면에서 이것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새 체계를 가져야만 M-R체계를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다.

II. 1959 문교부 안

【표기 일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ㅣ
a	ae	eo	e	o	u	eu	i

ㄱ	ㄷ	ㅂ	ㅋ	ㅌ	ㅍ	ㄱ	ㄷ	ㅂ
g	d	b	k	t	p	gg	dd	bb
ㅅ	ㅊ	ㅈ	ㅅ	ㅆ	ㅎ	ㄹ	ㄴ	ㅁ
j*	ch*	jj	s*	ss*	h	l/r	n	m ng

* 받침소리는 d로 표기함.

이 표기법 기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당시) 한글 맞춤법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자역법이라는 것이었으나 실제 표기 예시를 보면 철저한 자역법이 아니라, 자역법과 표음법 절충식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체계를 한글 문헌 저장용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음 정보 제공이 중요한 일반용으로 도로 표시판 같은 데까지 썼으므로 이 안(案)의 발음 오도(誤導)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1. 모음 표기

이 안(案)에서 ‘애’를 ‘ae’로 적는 것은 M-R체계에서처럼 ‘아에’로 읽는 이 태리어식을 따른 것이다. 만약 ae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가 된다. 예컨대 ‘대우’(Daewoo)를 외국인들은 주로(95%이상) ‘디우’로 발음하고 극소수는 ‘다유우’(Da-ew-oo)처럼 세 음절로 발음한다. ae가 영어에서[i:]로 발음되는 예를 몇 개만 보자.

aesthetic (미학적), Caesar (人名), encyclopaedia (백과사전),
haemoglobin (혈색소), paediatrics (소아과) …

불어식으로는 ‘애’를 ai로 적는 것이 관례적이며, 희랍어에서도 로마자 a

와 i에 해당하는 알파(a)와 이오파(i)를 합치면 엡실론(ε)과 같은 음가가 된다.

모음 ‘ㅣ’에 eo를, ‘ㅡ’에 eu를 배당한 것이 표음을 망쳐 이 안(案)의 치명적 결점이 되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1984년에 쿠데타 당하듯 이 안이 M-R 체계로 전격(電擊) 교체되지 않았을까? eo는 이태리어식으로는 ‘에오’가 되지 만 영어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된다.

- | | |
|----------------------------|-----------------------------|
| ① /i:/ people, | ② /e/ leopard, Geoffrey, |
| ③ /aʊ/ McLeod | ④ /æʊ/ yeoman, |
| ⑤ /iə/ geographical, | ⑥ /ɜ:/ George |
| ⑦ /iːn/ neon, theology, | ⑧ /i:ə/ peony, |
| ⑨ /i:æʊ/ Leo, geo-politics | ⑩ /ɪb/ geometry, geography, |
| ⑪ /ɪ(i):ɔ:/ Peoria, | ⑫ /ju:/ peon(印度使喚) |

이렇게 열두 가지 발음 중 어느 것 하나도 뒤쪽 모음 ‘ㅣ’와 비슷하지 않은데 ‘ㅣ’에 eo를 채택한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서울’ 영어철자 Se-oul에서 음절 경계를 잘 못 넘겨짚어 Seo-ul로 착각한 나머지 ‘eo’를 ‘ㅣ’로 여긴 것이다. Seoul이라는 철자 유래, 즉 그것이 원래 불어식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른 어이없는 잘못이다. 어쨌든 ‘eo’를 한국인 이외에는 아무도 ‘ㅣ’는커녕 그 비슷하게도 발음하지 않는다. 그리고 ‘eu’를 ‘ㅡ’에 배당하는 방식은, ‘ㅡ’에 합당한 ‘u’를 성급하게 ‘ㅏ’에 배당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나왔을 테지만 외국인은 ‘eu’를 모두 ‘ㅏ’로 읽으니 큰 문제 아닌가?

2. 자음 표기

이 1959년 안(案)에서 ‘ㄱ ㄷ ㅂ’에 ‘g d b’를 배당한 것은 이미 M-R체계 논평에서 언급했듯이 언어학 이론상으로는나 한국인의 청취 감각상으로는나 가장 적절한 처리다. 더러 판 체계에서 ‘ㄱ ㄷ ㅂ’ 소리를 초성은 ‘g d b’로, 종성은

'k t p'로 적는 것이 눈에 띄나 이것은 우선 형태 음소론(morphophonemics)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영어 오발음 버릇을 근거로 한 것이라 남한테 여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한국인 열 명 중 아홉은 가령 영어 pick-up을 원어 발음 [ˈpɪkʌp] 대신 한국식 [pɪɡʌb]으로 바꾸고, 미국 사람 이름 McArthur[məˈkɑːθə]를 국어화하여 [mɛɡada]라 한다. 이렇게 k→g, t→d, p→b로 바뀌어 읽는 것은 '부엌안, 발언덕, 앞언덕' 같은 한국어 발음 버릇을 영어에까지 잘못 연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복'(福/bog)을 bok이라 쓰고 'bok있다, bok없다'에서 k대신 g소리를 내면서 그 글자를 잘못 읽는 줄조차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k, t, p' 글자를 언제나 바로 읽는 외국인들은 어찌란 말인가? 가령 '숙영'(淑英)이라는 이름에서 ㄱ받침을 k로 쓰면 외국인은 모두 '숙경'(淑卿)이나 '숙형'(淑炯)으로 읽거늘!

'ㄱ ㄷ ㅂ' 받침에 'g d b' 대신 'k t p'를 쓰는 방식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 단어 외마디 소리를 인상 표기로 받아 쓸 때에나 나타날 수 있는 초벌 표기, 또는 문외한적 표기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1979년과 2000년에) 국어심의회를 통과해 세상에 발표된 바 있으니 그때나 이때나 한국의 언어학/형태음소론 수준을 어찌 평가해야 할는지 실로 난감한 것이다. 그런데 1959년 안(案)은 오히려 자역법을 추구했기에 이렇게 'g d b'만 쓰기로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ㄱ ㄷ ㅂ' 표기방식으로는 결과적으로 제일 잘 된 것이다.

그런데 거센소리 'ㄱ ㅌ ㅍ'[kh, th, ph]에 달랑 'k t p'를 배당한 것은 거세지 않은 라틴 어 원 발음과 아주 거센 한국어 발음 실상을 다 모르고 (그 중간쯤 되는 영어와 독일어만 겨우 알고) 안이하게 처리한 음성학적 무지 소산이다. AC Gimson이 발음한 국제 음성기호(IPA) 녹음 자료상으로도 [k, t, p]는 한국인 귀에 모두 된소리다. 불어, 이태리어, 스페인 어, 러시아 어, 희랍어, 라틴 어 등에는 거센소리가 없어 그런 언어 'k t p'는 모두 된소리에 가장 가깝다. 영어 'k t p'는 강세음절 첫머리에서 어지간히 거세게 되지만 독일어나 스웨덴 어 거센소리 보다 약하고, 한국어 거센소리는 독일어, 스웨덴

어 거센소리보다도 오히려 더 거세서 그것을 로마자로 나타내자면 ‘ㄱ ㅌ ㅍ’ 소리는 각각 ‘khh, thh, phh’로 적음직한 것이다. 그것을 간소화해서 적는다고 해도 ‘kh, th, ph’쯤은 되어야 ‘ㄱ ㅌ ㅍ’ 음가를 반영한다 하겠다.

‘ㄱ, ㄷ, ㅂ’ 소리에 ‘gg, dd, bb’를 배당한 것은 완전히 한글 자역법이다. 연한소리(lenis)를 두 개 겹쳐도 계속 연한소리가 나기 때문에, 한글을 염두에 둔 한국인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된소리(fortis)로 읽지 않는다. 그것은 발음정보 제공용(用)으로는 국제성이 전혀 없다. 이 체계에서 설상가상으로 표음상 가장 어이없는 잘못은 ㅈ 소리에 jj를 배당한 것이다. 이 철자는 고작 [dzdz] 또는 [dʒdʒ] 같은 파찰음 반복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아무리 gg, dd, bb 방식에 연계시킨다 해도 일반용 표기법이라면 파찰음은 적어도 dj나 tj나 cz 쪽으로는 적을 것이지, 마치 ‘파찰음’ 성격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처럼 어찌 그리 어이없는 글자 배당을 했는가?

위에서 대강 살펴본 1939년, 1959년 두 표기 체계는 언어학 이론상으로나 실용상으로나 문제점 투성이다. 그러나 이런 체계를 버리고 새 체계를 채택하자면, 새 체계가 그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한 것이라야 한다. 그렇지 못한 그저 그만그만한 체계를 가지고 자꾸 바꿈질을 한다는 것은 국고 낭비, 국력 낭비일 뿐이다. 월등하게 더 좋은 표기 안을 내도록 학자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金敏洙(1973). 『國語政策論』. 고려대 출판부.
 문교부(1959).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서울.
 -----(1978). 「국어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 서울.
 俞萬根(1985). 「표준 한국어 정밀표음 로마자 맞춤법 연구」. 『언어』 10.1.
 한국 언어학회.
 -----(1998). 「한글 로마자 번자법(飜字法)과 우리말 로마자 표음법(表音

- 法)』. 『말소리』 35-36. 대한음성학회.
- (1999).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99) 검토」. 『말과 글』 81. 한국교
 열기자회.
- 崔鉉培(1961). 『고친 한글갈』. 正音社.
- Berlitz Co. (1995). *European Phrase Book*. Berlitz Publishing Co.
 Oxford.
- Fouser, R. J. (1999). Nationalism and Globalism in Transliteration
 Systems : Romanization Debates in Korea. *Language Research* 35. 1.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Ladefoged, P. & Maddieson, I. (1996). *The Sounds of the World's
 Languages*. Blackwell, Oxford.
- McCune, G. M. & Reischauer, E. O. (1939).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XIX*. (Kraus
 Reprint Ltd. Vaduz 1965).
- Royal Asiatic Society (1961). Tables of the McCune-Reischauer
 System for the Romanization of Korean.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XXVIII*. Seoul.
- Youe, M.-G. (1986). On the Transcribing of the Chroneme in Korean.
Linguistic Journal of Korea 11.2 (or *Actes de la 9e
 Conférence Annuelle*, AKSE, 1985. Chantilly, France.)